

시간에 시간으로 대응하기

조수민

“모든 것은 시간문제이다.” - 직장 동료의 스치듯 뻗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진정한’ 동시대 미술이란 무엇인지를 역설하는 한 강연에서 들었던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몇 장 넘기다 말았던 발터 벤야민 선집에서 떠올린 생각 같기도 하고. 언제부터인가 이 문장은 늘 나의 주변을 맴돌았다. 적어도 나에게 모든 것이 시간 ‘문제’인 이유는, 시간은 언제나 ‘시간-조건’이기 때문이다.



조수민 개인전 《오프닝 Off-ning》(2025, 아마도예술공간), 전시 그래픽 포스터, 디자인: 윤현학(메이저마이너리티).

2023년 여름, 아마도예술공간으로부터 전시 제안을 받았다.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대략 2년 뒤인 2025년 하반기 중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렇게 약 2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시간은 나의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되었다. 아마도예술공간에서의 전시 《오프닝 Off-ning》은 이렇듯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조건’에 어떻게 ‘반응/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¹

아마도예술공간에서의 전시를 준비하며 가장 처음으로 디렉터님에게 요청했던 것이 ‘아마도예술공간의 규칙’이었다. 이 미술 공간을 구축해 온 여러 시공간적 규칙을 작업의 조건이자 출발점으로 삼아, 그것을 잘 준수하면서 동시에 그 규칙들 사이의 틈을 찾아 공간에 침투해 보고자 했다. 그렇게 나는 지난 2년 동안, 과거의 흔적으로 뒤덮인 물리적 공간이자, 대안공간과 기관 사이를 흥미롭게 유동하는 아마도예술공간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시간을 보냈다.

전시에는 여러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이번 프로젝트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흔적과 추적(track)’이라고 볼 수 있겠다.² 나는 아마도예술공간에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쌓여온 여러 흔적을 나의 방식으로 추적하였고, 그 추적의 결과는 다시 새로운 흔적이 되어 공간에 남겨졌다. 생각해 보면 흔적이 쌓이는 과정도, 그리고 그 흔적을 다시 추적하는 과정도 모두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었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목표는 이 모든 과정-행위를 통해, 아마도예술공간의 제도적 시간선(線)의 여백 속에 새로운 시간선을 그어 보는 것이었다.

나는 매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 따라 (마치 일상이 그러하듯) 무엇을 ‘해’ 왔다. 결국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형식을 떠든 간에, 무언가를 ‘하는’ 과정 그 자체가 지금까지 내가 가장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작업이었다. ‘과정’은 그것의 근간이 되는 시간성을 앞세워, 나의 판단과 결정을 유보하거나 혹은 반복할 수 있는 여지를 무한히 생성해 주는 마법의 단어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의 많은 작업이 이 과정, 즉 시간의 작동을 전제했다.

아마도예술공간에서의 전시 또한 출발과 도착점 사이의 거리가 멀었기에, 나의 여러 선택과 싸울 기회가 많았다. 시간을 재료로 삼아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행위를 시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주어진 시간을 나의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한 여러 규칙을 만들고 수행했다. 내가 경험한 적 없는, 아마도예술공간의 과거 기록을 추적하거나, 다른 작가와 작업이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을 관찰하거나, 공적으로는 멈춰 선 전시장의 여백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가 각기 다른 타임라인과 규칙에 기반을 두고 수행되었다. 그리고 다시, ‘긴 시간’은 내가 이 미시적 시간 규칙들과 지 난하게 결투할 수 있는 더 큰 조건으로 작동해 주었다.

1 조수민 개인전 《오프닝 Off-ning》, (2025.09.19 - 10.19.),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https://amadoart.org/exhibition/%EC%A1%B0%EC%88%98%EB%AF%BC-%EA%B0%9C%EC%9D%B8%EC%A0%84-%E3%80%8A%EC%98%A4%ED%94%84%EB%8B%9D%E3%80%8B/>

2 ‘track’은 남겨진 흔적이자, 동시에 그것을 추적하는 행위이다. 결과와 행위, 과거와 현재는 이 단어 안에서 하나의 시간 구조로 중첩된다.



조수민 개인전 《오프닝 Off-ning》(2025, 아마도예술공간) 전시 전경, 사진 촬영: 조준용.

결과적으로는 《오프닝 Off-ning》이 ‘2년 동안 준비한 전시’일 수 있겠지만, 사실 ‘2년이 주어진 전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여기서 2년은, 자체 기획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아마도예술공간이 작가에게 제안할 수 있는 일종의 규칙으로서의 시간이다. 이는 일반적인 공모와 기금이 제시하는 시간과는 분명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결국 작가에게 핵심은—조건을 설정하는 주체가 자체 기획으로 운영되는 전시장이든, 공모나 기금이든 간에—주어진 시간 조건에 어떠한 태도로 대처할 것인가에 있다.

작업을 해 온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또 공모나 기금에 선정되어 본 적도 없기에, 나는 아직도 다른 무엇보다 작업을 그만두지 않기 위한 스스로와의 싸움이 더 급급한 상황 속에 있다. 결국 현시점에 내가 가장 가까워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련의 시간과 그에 대처하는 나의 태도이다. 내가 철저히 의존하기도 또 완벽한 독립을 꿈꾸기도 하는 대상이, 제도가, 지금 나에게 ‘시간’인 것이다.



조수민, <IDX: 2023-2025>, 2025, 타임카드에 디지털 프린트, 수납함, 90×20.5cm(2개), 사진 촬영: 조준용.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속절없이 흘러가는 일상적 시간이면서, 동시에 명확한 단위로 분절된 제도적 시간이다. 시간을 측정과 통제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온 인간의 역사는 유구하다. 이렇게 제도적 시간 감각에 길들여진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인간이 칠 수 있는 발버둥은, 이 제도와 발맞추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간성을 고안하는 것일 테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전복할 순 없지만, 선형의 시간을 전복할 순 있다.³ 주어진 시간을 붙잡아 쪼개고, 지연시키고, 낭비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반복하는 등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말이다. 즉 시간이라는 조건에 새로운 ‘시간-조건’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결국, 시간뿐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제약 속에서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어진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전략’이 아닌, 문제에 문제로 대응하는 ‘전술’이 아닐까.⁴

3 본 글에서 나는 선형의 시간을 자연적 조건으로서의 시간이 아닌, 제도적 운용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규범화되는 시간으로 간주한다.

4 미셸 드 세르토(신지은 옮김), 『일상의 발명: 실행의 기예』(서울: 문학동네, 2023). 드 세르토가 말하는 전략(strategy)은 장소를 점유한 주체가 시공간을 조직하기 위해 만들어 낸 권력적 체계이며, 전술(tactic)은 그 전략의 시간적 틈새를 포착함으로써 수행되는 개인의 주체적 실천이다. 전술은 제도적 시간, 즉 규범으로서의 전략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안에 머무르되, 비스듬하게, 더 나아가 때로는 완전히 거꾸로 서 있을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기술인 것이다. 내가 보는 ‘전술’의 가장 핵심적 역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략(의 한계)’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조수민(www.sumincho.work)은 시공간적 조건, 특히 제도화된 시간 규칙에 주목하며, 이를 수행과 기록의 방식으로 다뤄왔다.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질 여러 조건에 어떻게 대처하며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